

‘경찰국 반대’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의견수렴 절차 충분치 못했다”
수뇌부 만류에도 총경급 결집
회의장 현수막·지지화환 빼곡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경찰들이 현수막을 보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사상 초유의 총경급 결집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수뇌부가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만류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50여 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1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인 최규식홀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회의를 제정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장에 도착해 “경찰국 설치가 타당하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수뇌부를 향해서도 “경찰의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회의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니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장 주변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참석

자들에게 지지를 보였다. 회의장 주변엔 지지를 나타내는 화환들도 빼곡히 들어섰다

직협 관계자 100여 명은 ‘그대 선이 자리, 경찰의 미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등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부산 경찰은 응원 버스를, 울산 경찰은 400여 명분의 음료 재료를 실은 푸드카를 끌고 와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이 로비로 도착할 때면 손뼉을 치고, “서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소속 지역 경찰관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날 대구지역 경찰을 대표해 현장에 온 김학연 대구 동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장님들도 힘을 모아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며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회의장단 회동추진



대통령실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의장단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뒤 “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의장단과 만나 사전에 ‘기회 되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다”며 “국회가 원구성되고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해서 정국국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부탁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3대 개혁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세제(개편)도 민주당과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탈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국회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의사) 타진을 해 볼 텐데 휴가 기간이 도래해 8월 초에 다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 (회동은) 정국국회 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하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여야가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부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부·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연합뉴스

국힘 “정치경찰, 집단행동 부적절” 난타

권은희 “무조건 굴종 압력” 반대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인식도 깔렸다.

경찰 소관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안에 대해 당내 지배적인 의견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며 “경찰청 남재현 인사담당관 전격로 행해진 류 총경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

이상호 “류삼영 직위해제 분노”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에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에게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나.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평검사회의, 법관회의 등 사례를 거론,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정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정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전매광고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장흥군 관산해상풍력발전소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전사업의 명칭
장흥군 관산해상풍력발전소

나.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해상 일원

다. 발전사업의 면적: 2.34 km²

라.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예정 시설용량: 96MW (6MW × 16기)
2. 사업개시 예정일: 2026년 7월
3. 발전사업허가 시행사: 한양전공 주식회사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이메일 접수 (jpower833@naver.com)

2022년 7월 22일
한양전공 주식회사

이 전남매일 국민안전 캠페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집심인편

개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